

정부기관 소식

농림부 소식



닭·오리 AI 의심농장 검사, 현재까지 이상 없어

농림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2007.11~2008. 2) 동안 AI의 국

내유입을 방지하고 발생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농장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고 전국 오리농장 혈청검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농가에서 닭·오리가 죽거나 갑자기 알을 적게 낳는 등 AI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방역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오리의 경우 농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일선 방역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색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리농장 혈청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 검사(간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 AI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게 된다. 현재까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한 398농가 12,195점 중 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검사가 의뢰된 건은 총 25농가이며, 이 가운데 가금류 살처분 등 방역관리 대상이 되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2207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에서 검출된 H7형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일한 사례이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또는 저병원성일지라도 H5 또는 H7형의 바이러스인 경우 나머지 24건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방역관리 대상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종결되었다.

검역원 소식



현장체험 “태안 앞마다 기름 제거 작업” 참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는 사상최악의 원유 유출사고

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태안군을 방문하여(12월 20일) 해안일대의 기름제거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현장체험 행사를 맞은 세군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에 따라 전격 결정되었으며, 30여명의 인원이 태안군 이원면사무소 및 지역주민의 안내에 따라 꾸지포 해수욕장 해변가의 바위와 자갈 등의 오염된 기름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이날행사에는 오염된 돌 하나라도 더 닦으려는 참여자의 정성스런 마음과 함께 현장의 작업도구를 재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걱정거리인 쓰레기를 줄여 보려는 노력에서 모범적이면서 알찬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칭찬을 받았다. 수의과학검역





원에서는 이번행사를 시작으로 많은 직원이 순차적으로 기름제거작업에 참여하여 태안군 해안이 조속히 자연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축산과학원
소식**



한국사양표준 개정판 출판기념회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한국사양표준 및 한국표준사료성분표의 개정판 출판을 기념하고자 12월 6

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호텔 리츠에서 학계와 연구소, 정부 관계자, 산업계, 축산단체, 양축가 등 주요 축산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념회를 개최하였다.

가축사양표준은 변화하는 가축의 생산특성과 사료자원 및 사육환경에 맞는 과학적, 경제적 사양관리를 위하여 적정 영양소 요구량의 제시 등 국가단위의 가축사양관리지침서이다. 축산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극히 제한된 국가에서만 발간이 되는 책자로서 축산연구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축산과학원은 200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우,

젖소, 돼지, 가금 등 4축종에 대한 한국사양표준을 제정하여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출판되는 한국사양표준 개정판 4권은 2002년 첫 발간 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축산과학원 등 국내 학계의 연구결과와 관련된 학계, 업계, 단체의 연구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여 각 축종별 개정위원회에서 한국의 가축사양관리 여건에 맞도록 검토하여 축산인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일부 축종은 농가에서 쉽게 사료급여량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CD로 제작하여 한국사양표준과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한국표준사료성분표는 1981년, 1988년, 2002년에 이어 4번째로 보완, 발간하는 것으로 가축사양에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부존사료자원과 친환경 사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협조, 그동안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가축사양가의 관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료성분표로 개정, 발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기관 소식

축산과학원 이상진 원장은 “최근 국가간 FTA 체결, 사료비 상승과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 가축 사육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과학적·기술적·경제적 사양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 발간하는 한국사양표준과 사료성분표가 가축 사육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소식



위생관리 시범사업으로 재래시장이 확 달라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위생수준이 취약한 재래시장 1곳씩을 선정하여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위생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재래시장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재래시장은 최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 밀려 침체되면서 위생수준도 매우 취약했으나, 최근 시설·경영 현대화, 위생관리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각 시·도가 표준지도표(시설 및 종사자 위생 등 28개 항목)에 의해 시범사업대상 재래시장의 위생수준을 연초와 비교평가한 결과, 전국 평균 43%의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은 그동안 단속 위주의 식품위생업무를 지양하고,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가변영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를 유도함으로써 위생의식이 높아져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식약청은 2007년도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을 종합평가하여 인천시 등 4개 시·도를 재래시장 시범사업 우수 시·도로 선정하고, 기관표창 및 포상금(500만원)을 수여했다.

- ※ 최우수 : 인천시(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 200만원)
- ※ 우수 : 경기·강원·경북(식약청장 표창 및 포상금 각 10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은 2006년도 6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그간의 주요 성과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위생복, 손 소독기, 해충퇴치기 등을 구입·지원하여 위생시설 등이 크게 개선되었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지도·계몽, 식품취급요령 및 식중독 예방관리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현장 방문교육 실시 등을 통해 상인들의 위생의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식약청은 그간의 시범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위생관리에 역점을 두고,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선 전】



【개선 후】

